



그가 세계적인 작곡가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그의 음악'은 잘 모른다. 동베를린 사건으로 겪은 고초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도 음악 자체는 낯설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조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의 음악으로는 그 조국의 사람들에게 별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작곡가. 이런 엄청난 인식의 간극 위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이가 서 있다.

### 쇼스타코비치와 윤이상, 언니간 공통분모

이날 연주회의 프로그램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전주곡과 스케르초 Prelude and Scherzo Op.11(1924-25)>, 윤이상의 <현을 위한 용단 Tapis pour cordes(1987)>, <오보에와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Duo concertante for oboe and cello(1987)>, <실내교향곡 제1번 Chamber Symphony No.1>이었다. 연주는 그 동안 윤이상의 작품을 꾸준히 연주해온 서울바로크합주단이 했으며, 지휘는 서울바로크합주단이 나소스 레이블에서 윤이상의 작품을 녹음할 때 지휘를 했던 표트르 보르코프스키가 맡았다.

첫 곡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전주곡과 스케르초 작품 11>이 연주됐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넣은 것은 올해가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다가 그가 스탈린의 독재 아래에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작곡가로 윤이상과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독재정치 아래에서 고초를 겪었던 두 작곡가의 음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음악축전의 기획의도였던 듯하다.

하지만 이날 연주된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은 사실 정치적 억압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곡이다. 그가 정치적 억압을 받기 전인 열여덟 살에서 열아홉 살에 걸쳐 작곡한 곡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시에는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음악원에서 늘 수석을 차지할 정도였으며, 열아홉 살 때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교향곡 제1번>이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약관의 나이에 국제적인 스타로 부상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 곡에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 특유의 패기와 야심이 흘러 넘친다. 젊은이다운 공격성과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이 재기발랄한 리듬으로 구현되고 있는 이 곡에서는 후에 쇼스타코비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암울함이나 냉소적인 비웃음 같은 것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다. 따라서 이 곡을 들으며 독재정치의 희생자 쇼스타코비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기왕 '정치적인 억압'이라는 코드로 두 작곡가를 묶으려고 했다면 이에 부합하는 레퍼토리로 공연의 의미와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로 연주된 <현을 위한 용단>은 본래는 현악 5중주곡이지만 현악 오케스트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되었다. '용단'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적이고 횡적인 음들의 절묘한 조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다음 곡인 <오보에와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은 오보이스트인 잉고 고리츠키와 첼리스트 요하네스 고리츠키를 형제를 위해 작곡한 것이다. 오보에 독주자는 후반부에 잉글리쉬 혼도 함께 연주하도록 돼 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잉고 고리츠키의 직계 제자인 사토키 아오야마와, 서울바로크합주단의 첼로 수석인 정재윤이 협연자로 출연했다. 현재 일본 NHK 교향악단의 오보에 수석으로 있는 사토키 아오야마는 아주 화려한 고난도의 테



● '윤이상 평화음악축전 2006'은 윤이상의 음악활동이 이뤄진 일본·한국·독일에서 그의 주요 작품을 연주, 20세기 세계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예술적 업적을 조명하고 기념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그 행사 중 일부로 지난 9월 19일 서울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윤이상 관현악의 밤'은, 지휘는 표트르 보르코프스키가 연주하는 서울바로크합주단이 맡았다.

크닉을 요구하는 독주 부분을 전혀 막힘 없이 연주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의 날라리를 연상시키는 오보에 주법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연주된 <실내 교향곡 제1번>은 윤이상이 독일 중부에 위치한 귀터슬러 시로부터 위촉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1988년 프랑크푸르트 챔버 필하모닉에 의해 초연되었다. 악기는 현악 앙상블에 두 대의 혼과 오보에가 첨가된 모차르트 시대의 전형적인 교향곡과 같은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을 위한 용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양적인 느낌을 주는 현악기 군(群)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유지하며 선적(線的)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이따금 신비로운 색채의 화성이 바탕화면처럼 깔리는 작품이다.

### 유려하고도 탁월한 연주, 난해한 해설

이날 시작에 앞서 지휘를 맡은 보르코프스키가 나와 한국어로 해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워낙 어려운 곡이다 보니 적절한 해설을 곁들이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지휘자의 해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해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읽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법에도 맞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었다. ‘동양적인 테크닉을 가미한 텍스처’ ‘작곡가의 특출한 음악어법에 의해 구조적이고 유기적으로 다루어진단’ 이런 식이었는데, 관객들로 하여금 현대곡은 음악은 물론 해설도 이해하기 힘들구나 하는 자괴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연주된 윤이상의 작품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다. ‘현대음악’ 하면 연상되는 파격적인 불협화음이나 귀에 거슬리는 고음과 괴상한 음향, 불규칙한 음들의 간헐적인 출현 같은 것이 별로 없는 온건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음들의 횡적인 움직임은 구현하는 전통음악적인 요소와, 음들의 종적인 결합을 구현하는 서양음악적인 요소를 하나의 용광로 속에 이상적으로 녹여놓은 윤이상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으며, 적절한 해설이 있었다면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부실한 해설에 비해 연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 동안 국내외 공연을 통해 꾸준히 윤이상의 작품을 연주해온 서울바로크합주단은 이날 공연에서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합주단으로서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들의 탁월한 연주력과 뛰어난 앙상블 덕분에 윤이상 음악이 지니고 있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눈뜰 수 있었다. 아마 이날 이들의 연주를 지켜본 관객들은 대부분 현대음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듣기 괴로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

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정치적인 윤이상과 음악가 윤이상의 결별을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작곡가로서 윤이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연주회를 통해 그가 이룬 음악적 성과를 기념하고, 그 음악을 부담 없이 즐기기에 우리의 음악적 경험이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꾸만 그가 당한 정치적 고초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연주회날 너무나 썰렁했던 예술의전당 예매권 교환창구의 풍경은 우리 사회에서 윤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윤이상이라는 인물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과 그가 이룩한 예술적 성과를 이상적으로 결합시킬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현상인지도 모른다. ‘윤이상 평화음악축전’이라는 정치적 표제는 관객 모두가 진정으로 그의 음악을 이해하고 즐기는 음악축전으로서의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했을 때에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치적인 인물로서의 윤이상과, 작곡가로서의 윤이상이 서로 결별해야 할 때다. 정치적 명예회복만큼이나 중요한 작곡가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그를 그만 그 정치적 상징성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상징성이 그의 음악을 사심 없이 듣는 것을 방해하고, 그의 음악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이날 연주된 세 곡 모두 1987년에 작곡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너무나 비슷하다. 혹자는 이것을 윤이상 고유의 음악어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음악을 듣는 내내 각각의 곡을 구별 짓는 개성을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초의 신선함이 퇴색했으며, 그래서 다소 지루한 느낌마저 들었다. 내용에 비해 길이가 너무 길었던 탓일까.

나는 윤이상의 음악을 들으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하에 누워 있는 윤이상 선생도 이런 식의 맹목적인 애정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베토벤을 비판했던 톨스토이에 대한 로맹 롤랑의 변명처럼, 그 역시 추종자들의 맹목적인 찬사보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에 더 만족하리라. 나는 그렇게 믿는다.

글쓴이 | 진희숙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음대와 서울대학교 음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한국 음악극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평론으로 월간 <객석>이 공모한 예술평론상에 당선되면서 음악평론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음악동아>·<객석>·<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월간지와 일간지에 기고를 해왔으며,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의 전문구성작가로 <KBS 음악실>·<클래식 오디세이>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을 맡았다. 저서로 <클래식 오디세이>·<나비야 청산가자> 등이 있다.